

농어촌公 김포지사, 덕교항 어촌뉴딜사업 기공식 개최

[박영훈]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인천 중구 덕교항에서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.

이날 기공식에는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, 김태원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, 중구의회, 어촌계 등 주민들이 참석하여 갯벌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공동가공시설 활용 등 성공적인 어촌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축하하였다.

덕교항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하여 ▲어항시설 확충 ▲공동수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조성 ▲용유 갯벌 안전교육센터 조성 ▲마시안 갯벌체험센터 조성 등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된다.

김태원 김포지사장은 "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마을 재정비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어촌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, 어촌뉴딜사업 시행 전문기관으로서 사람과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300개의 어촌-어항에 대해 생활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.

[신아일보] 김포/박영훈 기자 ywpack@shinailbo.co.kr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